

<p>제가 되고 있는 7호선 1단계 공사진척도는 85%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, 지하구간인 여의도 마포구간은 '89년 착공 '95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총 공사기간은 6년. 천호구간은 '89년 착공 '94년 완공예정으로 5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등 한강 지하화는 공사기간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는 난공사임.</p> <p>○ 따라서 7호선이 '97년 완공 목표를 두고 있는 현상태에서 청담대교를 따라서 건너가게 될 선로를 지하화할 경우 최소한 5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'99년이나 2000년에 개통될 수가 있어 전체 지하철 건설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또한, 한강 지하화는 현재 공사가 80% 가까이 진행된 전대입구역과 어린이대공원역 사이의 터널 및 정거장이 재 시공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.</p> <p>○ 한편 예산측면에서 볼 때 이미 서울시에서 동부도시고속도로의 한강통과 구간을 위하여 청담대교가 계획되어 있고 청담대교 밑을 지하철이 지나가게 된다면 새로운 철교 건설이나 하저 밑을 통과하기 위한 터널을 만드는 등 추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.</p> <p>다. 민원 해결방안</p> <p>○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은 현대아파트는 10m 거리에서 지상 23m 지점으로 통과, 양지주택은 10.6m 거리에서 5.5m 지상으로, 신안빌라는 8m 거리에서 8.5m 지상으로 통과하므로 기존 지하철 시공기술로 볼 때 심각한 소음과 진동이 예상됨. 예로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사는 벽산아파트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결과 뒤늦게 방음벽 설치를 하는 등 문제가 야기된 곳도 있으므로</p> <p>○ 새로운 기술과 공법으로 환경기준치인 65dB는 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</p>	<p>도록 과학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.</p> <p>또한 지상으로 지하철이 지나감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로를 사이에 두고 두지역을 연결할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.</p> <p>.....</p> <p>이상 报告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 委員長代理 李元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다음은 地下鐵建設本部長으로부터 本 請願에 대한 執行部側 意見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○ 地下鐵建設本部長 李棟 地下鐵 7號線 建大入口 清潭驛 區間 地下化 建設要求 請願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.</p> <p>油印物을 參照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 告)</p> <p>지하철7호선 전대입구~청담역구간 지하화 건설요구 청원검토</p> <p>《청원내용》</p> <p>○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구간은 도봉에서 상계, 중곡을 거쳐 지하철 2호선을 지하로 통과한 후 성동구 자양동, 성수동지역에서 한강교량 통과를 위하여 지상으로 건설됨에 따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하철의 지상건설에 따른 일부 횡단 보도의 폐쇄, 생활권의 분리 등 주민 통행의 불편과 - 소음·진동의 발생으로 주거환경에 피해발생이 예상되며 <p>○ 또한 지하철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청담대교 접속 고가차도가 동시에 건설되나 6차선의 고속도로가 본지역에서 2차선으로 설계되어 차량정체로 인한 소음, 매연의 피해와 교육환경에 저해가 예상되므로</p> <p>○ 전대입구~청담역구간을 지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</p>
--	---

(第72回 - 交通第1次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원인 :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829 한강현 대 APT 101동 1102호 안영순 외 4,069명 ○ 소개의원 : 건설위원회 최종덕 의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하철 7호선 건설계획 ○ 건설규모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장—42km 정거장—41개소, 차량기지 2개소 ○ 건설구간 : 도봉~상계~면목~건대입구~강남 ~광명~온수 ○ 건설기간 : '90~'97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1단계(도봉~건대입구) : '90~'94년 — 2단계(건대입구~온수) : '94~'97년 ○ 건설비 : 2조 2,204억 원 ('92.10. 가격) 2. 지하철 7호선 2단계구간 주요 추진경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89.5 :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○ '89~'91 : 기본설계 용역시행 ○ '92.9 : 도시철도 건설 기본운영계획 승인 (교통부) ○ '93.1.~'93.2 : 도시계획 공람공고 ○ '93.2 :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○ '93.3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○ '93.3 : 도시계획시설결정(서고시 제1993-77호) ○ '93.12 : 계약 및 공사착공 3. 지하철 7호선 한강통과 구간 건설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하천통과방법은 하저로 통과하는 방안과 교량 등 하천위로 통과하는 방안으로 대별됨 — 하천통과방법에 따라 건대입구~청담간의 종단선형과 정거장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음 — 본 구간에 가장 가능성 있는 교량, 개착(가물막이), 터널(NATM) 공법의 3 가지에 대하여 집중 검토 ○ 주변환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대상구간 : 건대입구~영동대로간 3.1km (한강구간 1.2km) — 토지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강북 : 학교, 주거지역, 뚝섬유원지 — 강남 : 주거지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도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강북 : 능동로(B=25m) — 강남 : 학동로(B=35m) ○ 계획시 고려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2호선 건대입구역과의 환승 — 하천통과 공법과 관련한 하천 양측의 종단계획 — 지형 및 지질조건 — 한강 최고 홍수위 — 강북측 강변도로, 강남측 올림픽대로와의 입체교차 — 고속화도로와 병행건설 관련사항 ○ 대안별 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【개착(가물막이)안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남측은 유심부로 수충부이고 탄천과 합류지점으로 가물막이 시공 불가 • 강남측 청담동 지역은 심도가 깊어 터널로 시공하여야 하나 하천과의 접속부분은 토사층이 깊은 급경사지로 시공시 사면붕괴(SLIDING) 등이 우려됨 • 한강은 홍수 등 계절적인 영향으로 공사기간이 제한됨 • 인접 청담정거장의 심도가 깊어져(25m → 40m) 시공 및 이용상 불리 【터널안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강통과 구간은 경험상 암반층 밑에 터널이 건설되어야 안전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, 최소 암반층 두께는 터널공학상 터널직경의 2배인 18m 이상을 두어야 함. • 심도를 깊게 하더라도 공사 중 지층변화, 지하수용출, 환기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공사시행이 곤란하며 경제성에서 도 고가인 공법임 • 정거장 심도가 깊어짐으로써 이용불편 【교량안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시고속도로(청담대교)와 병행건설 가능 • 강변북로의 상부, 강남 올림픽대로 밑으로 통과 가능 • 한강홍수위 이상으로 통과 가능 • 주택지역의 방음, 방진설비 필요 • 경제성면에서 가장 유리
---	--

<p>○ 검토결과</p> <p>위와 같이 3개 안을 검토, 교량안이 전 대입구정거장의 승환깊이 및 청담정거장의 접근성(지하철 이용측면)과 도시고속화도로와 병행건설시 가장 적합하여 2층 교량안을 채택 설계·시공 중임.</p> <p>4.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</p> <p>가. 지하화의 검토</p> <p>○ 성동구 자양동, 성수동의 지상구간을 지 하로 변경하기 위하여 어린이대공원~전대입구간 기시공된 구조물의 재 시공 문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정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어린이대공원 : 98% — 전대입구역 : 80% — 하저 터널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양역 설치 불가 문제(사유 : 급구 배에 정거장 설치 불가) • 청담역 대심도 문제(현 23m→60m) <p>※ 하저 터널시에도 도시고속도로 교량(청담대교 및 접속도로)은 건설되어야 함</p> <p>나.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</p> <p>【소음·진동 대책】</p> <p>○ 공사 시행 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소음 및 진동이 적은 기초공법·적용(중굴공법) — 작업시간 조정 <p>○ 운행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원 차단 • 중량화 레일사용(50kg/m→60kg/m) • 장대 레일화(레일을 용접하여 충격으로 인한 소음·진동 발생요인 제거) • 레일 체결구 탄성화(천연고무 레일 </p>	<p>폐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침목의 탄성화(이중폐드 사용) • 레일표면 관리 철저 <p>【횡단보도 확보대책】</p> <p>지하철이 지상에 직접 설치되어 횡단보도가 폐쇄되는 구간(250m)에 대하여는</p> <p>○ 공사시행 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인근에 횡단보도를 확보하고 교통정리를 배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후 공사 시행계획임 <p>○ 공사완료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현지여건을 감안 주민통행의 불편·최소화 방안 시행계획 <p>5. 결론</p> <p>○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전대입구역에서 한강까지의 구배조건이 도시철도건설규칙상 구배의 제한치를 초과하여 하저터널로 통과는 불가능하며,</p> <p>○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음·진동대책 및 횡단보도 확보대책 등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이상 報告드렸습니다.</p> <p>○ 委員長代理 李元局 地下鐵建設本部長 수고 많으셨습니다.</p> <p>다음은 本 請願에 대한 質疑와 答辯이 있겠습니다. 質疑와 答辯은 地下鐵建設本部長을 상대로 一問一答式으로 進行하겠습니다.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있으시면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吳世根委員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 吳世根委員 吳世根委員입니다.</p> <p>建大驛에서 清潭驛 河底터널 請願에 대해서 本委員이 質疑를 하겠습니다.</p> <p>質疑에 앞서 우리 城東區는 22個 區廳 中에서도 80萬 人口라는 제일 人口密度가 많은 地域입니다. 반면에 이 동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城東區는 江東區할지, 松坡區할지, 江南區를 地域發展을 많이 시켰습니다. 옛날에는 다 城東區였습니다.</p> <p>그런데 지금 현재 城東區는 제일 落後되어</p>
--	---